

미 8군 제 18 의무사령부 (Eighth United States Army 18th MEDCOM)



허 미 소 / 미 8군 제 18 의무사령부

산업간호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며 산업보건에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지 십수 년... 즉 금의 시대에 많은 산업간호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필요성에 산업간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기업 역시 산업간호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기를 원하고 있다.

이제 우리는 각 각의 산업현장에서 최상의 산업보건서비스를 높은 수준의 산업간호 실무와 접목시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. 이러한 시대적 기반을 배

경으로 선진 외국의 산업간호 실무를 응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토착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. 마침 전문직의 확장된 역할로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의 산업간호실무를 탐방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. 미 8군 제 18 의무사령부에 계시는 허미소 선생님이 기관탐방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.

미국의 산업간호 실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위해 미 8군 제 18 의무사령부를 방문하



기로 한 날. 오전부터 때 이른 여름을 재촉하는 장대비가 주룩 주룩 내렸다.

한국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, 남북한의 휴전협정 이후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하고 우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. 주한 미군은 미 전투 병력을 연합군 사령부 육·해·공 및 해병대 각 전투 부대로 배치하게 될 합동 군사 본부로서, 주한 미군 육군은 바로 미 8군을 뜻한다.

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제 18의무사령부는 미 8군에 대한 통상적인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한다. 주 임무는 1차적인 의무지원은 물론 121군 병원을 두어 2차적인 의무지원까지 하며 군병원, 의무소, 군건병원, 치과 등 의무시설의 통제를 한다. 미 8군은 다방면의 직종과 또한 직원들이 하루 정확히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가 이루어진다. 제 18의무사령부 안에 산업보건을 총괄하기 위하여 OH Consultant(Military MD)1명, Full time Civilian Physician 1명, Contract Civilian Physician(Part time) 1명, Occupational Health(OH) Nursing Supervisor 1명 등 8명의 보건관리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에는 1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. 이외에 Industrial Hygiene, Safety, Community health

and Infection control 와 밀접하게 연관하여 함께 일하면서 수시로 상의하고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.

미 8군의 산업보건서비스는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직원을 존중하며 직업과 관련된 질병과 손상을 예방한다는 대의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진다. 구체적으로 전염병 검열(Communicable Disease Screening)과 비소·석면·벤젠·벤지딘·베틸륨·혈액체액·카드뮴·탄소 등 염화물·DBCP·디옥산·수성·산화질소·실리카·톨루엔·크실렌·염화비닐 등 화학 스트레스 요인과 냉 및 열·소음·방사선 이온화 및 레이저·진동과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건강의학 감시(job-related physicals/medical surveillance)와 건강진단(EEC/MEC medical Exams)을 실시한다. 근무적합 여부판정(Pregnancy surveillance)을 하며 흡연·AIDS·간염 등에 대한 교육(Group Education), 근로환경에 관한보고(Work Site Visite)를 제공한다. 산 및 알칼리·마취가스·위험 약물·제조제·금속 증기·혼합용매·목제 분진 등 혼합 노출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관리를 제공해준다.

특히, OSHA 기준에 의한 청력 보존(Hearing conservation) 및 교육, 시력 보존(Vision conservation) 및 교육, 호흡 보호(Respiratory Protection) 및 교육을 실시한다. 직원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인간공학프로그램(Ergonomics program)실시 및 교육, 임신·카드뮴·에틸렌·에틸렌산화물·포름알데히드·납·메틸렌 염화물·혈액 관련 병원체·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학 감시를 실시한다. 항공·이용사·육아 중인 직원·고압산소요법 직원·소방수·식품 공급 직원·포크리프트 직원·냉동작업 직

원·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직원·자동차 통
신수·경찰 및 감시 안전 직원·폐수 및 하
수 처리 직원 등에 대한 특별한 검사를 실시
한다.

미 8군 제18의무사령부는 건강한 직장공동
체가 되기 위하여 장기 결근율을 줄이고 생
산성을 향상시키며 지휘관과 관리자 모두가
행복함을 누리며 비용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
어지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한다고 귀뜸 해 주
신다.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각한 신체
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나 산업재
해의 위험으로부터 직원이 자유로울 수 있도
록 사업장을 유지하고, 유해한 근무조건을
신속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이
행 한다. 또한 위험한 조건의 근로상태에 대
한 보고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. 한 예로 절
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24시간 안에, 잠재된
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3일 안에, 기타의
잠재요인에 대해서는 20일 안에 검사를 요구
할 수 있으며, 보고서를 제출하는 직원은 익
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 철저
하게 안전한 공급·장치 및 장비를 제공하
며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프로그램을 설치하
고 유지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
치하고 게시한다.

직원의 경우, 직원의 활동과 행위에 적용
가능한 기준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즉, 고용주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
고 지시한 안전장치와 개인 보호 장비를 사
용해야 한다. 직원은 스스로 위험하고 비위
생적인 근무조건을 보고 할 권리가 있으며,
공식적으로 직업안전과 건강 관련 활동에 참
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인가해 준다. 직무
중 손상은 미국인, 한국인 직원 뿐 만 아니
라 처음으로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
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

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.

산업간호사(Occupational Health Nurse)는
본질적으로 직원뿐 만 아니라 일과 건강과
직원의 가족까지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
며 고용주와 직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
영향을 줄 수 있는 인력이다. 본질적으로 산
업간호사는 직원의 내적인 요구를 파악하여
직원을 지지하고 고용주에게는 신망을 얻을
수 있도록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. 직원과
의 인터뷰는 약 40여분 정도에 걸쳐 이루어
진다. 이때 직원의 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
파악되며 사고 유무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
등 대안이 마련된다. 사고와 관련된 근로손
실일수와 비용, 직원에 대한 모든 내역을 보
고서로 작성하여 추후에 반영 될 수 있도록
한다. 보호구의 경우 '선정'은 산업위생사가
하며, 산업간호사는 '보호구를 직원이 사용
해도 되는가?'를 판정한다. 각 보호구에 대
한 '사용자를 위한 질문서'와 각종 객관적인
자료를 근거로 한다.

1969년 미국 Colorado Springs, Saint Francis
Hospital 에 Exchange nurse로 시작하여 18년
간의 근무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생소하기만
한 Occupational Health Nurse position에 제의
받고 걱정을 하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고 시
작한 미 8군의 산업간호사에 대해, 허미소
선생님은 즐겁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된
일도 많았다고 한다. 대표적으로 '소방관의
생활습관 변화'를 손꼽는다. 격일 근무를 하
는 소방관들은 남자들이 24시간 함께 일하다
보니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라면 등과
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으
며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40%가 고혈압·고
지혈증을 가지고 있었고 50% 이상이 흡연을
하고 있었다. 그러나 2년간의 식생활개
선·금연교육·운동처방 등을 통하여 현재

는 콜레스테롤 99%이상이 조절되었고 혈압도 조절되는 혈압으로 바뀌었다. 또한 90% 정도 금연에 성공했고 그중 적어도 10%는 직장 내와 집안에서 금연이 이루어지고 있다. 갑자기 심장발작이 온 직원을 조기발견·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년퇴직하였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온다. 작업장을 지나칠 때면 직원들은 재빨리 본인의 호흡기나 귀보호구 등을 재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.

이번 미 8군 제 18 의무사령부 기관탐방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산업보건과 미국의 산업보건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와 도전을 주었다. 보건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산업간호사들에게 허미소 선생님은 “모든 산업간호사들

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긍지를 가지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 각 사업장에서 산업전문간호사는 의사들도 본인의 전문분야를 제외한 산업간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, 직원들의 hazards에 대해서 Consulting 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지식을 쌓아야합니다. 또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춘 산업간호사들은 서로 좋은 정보는 교환하고 협력하여 대한민국에서 으뜸으로 여겨지는 산업전문간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.”우리 산업간호사가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도전을 가진 멋진 시간 이였다. 어느새 맑게 갠 하늘은 초여름의 향기를 날리고 있었다.

